

<사각사각-윙-또르르>

엄유정, 추미림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2020.12.27. SUN 4-6PM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space_willingndealing

김인선 안녕하세요. 저희 스페이스 윙앤딜링에서 첫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전시 때마다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했었는데, 이 시국에 좁은 공간에 모이게 하거나 전시 보러 오라고 하는 것도 미안해서 작가님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인스타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미림 작가님, 엄유정 작가님 인사드립니다.

추미림 안녕하세요. 추미림입니다.

엄유정 안녕하세요. 엄유정입니다.

김인선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작가님들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각자 본인의 최근 활동 중심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래의 전시나 각자 레지던시나 수상 등 좋은 소식도 알려주세요.

엄유정 저는 지금 스페이스 윙앤딜링에서 2인전에 참여 중이고 안산시 단원미술관에서 <초대 거부>라는 그룹전에 참여 중이고 경기 창작 센터에 입주 작가인 상태입니다.

김인선 얼마 전에 장기하 씨가 엄유정 작가님 만나러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뻐어요.

엄유정 네, 제가 이번에 장기하 님의 출판 관련 작업을 한 게 있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인선 네. 협업 관련한 이야기는 좀 있다가 차차 할 수 있으니 그때 다시 얘기하고요. 추미림 작가님도 소개해주세요.

추미림 저는 11월에 갤러리 룩스에서 개인전을 마쳤고, 지금 엄유정 작가님과 2인전을 하고 있고, 일본과도 종종 일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UNKNOWN ASIA'라는 크리에이터 전시/박람회 행사에서 그랑프리 수상한 계기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가서 아쉽지만 내년 2월에 작품을 보내서 활동하는 행사가 잡혀있어 다행입니다. 내년에는 고양 레지던시에 입주 활동을 하게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김인선 엄유정 작가님의 경우 아이슬란드 레지던시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였나요?

엄유정 2013년이었어요.

김인선 당시 그렸던 설산 그림들도 많이들 기억하세요.

엄유정 아, 그래요?

김인선 두 분의 간단한 현황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현재 전시를 먼저 얘기했으면 하는데요. 두 분의 2인전이고, 전시 제목이 <사각사각-윙-또르르>라는 특이한 제목인데, 의성어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의성어로 만들기로 했을 때 작가님들의 작업성향 자체가 보는 사람들이 워낙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로도 보이고, 재밌다 혹은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시의 ‘드로잉’이라는 매체를 강조해보자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재료 부분에서 발체가 된 사운드였어요. ‘사각사각’은 종이에 펜 혹은 연필로 그리는 소리, ‘윙’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소리, ‘또르르’는 펜을 굴리는 소리로 하여 이들을 조합해본 건데, 제목 마음에 드세요?

추미림 네. 누가 또르르가 눈물이나고도 물어봤죠.

김인선 맞아요. 하하. 두 작가님들이 의성어 여러 가지를 많이 골라봐 주시고 의견을 모아서 논의를 하여 만든 전시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 우리가 특별히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종이 매체를 중점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종이는 두 분이 익숙하게 다뤄온 재료인 거죠?

엄유정 이번 전시에서는 종이 매체에 집중해서 전시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추미림 작가님과 제 작업의 여러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다양한 재료들, 추미림 작가님의 경우 캔버스나 다른 물성을 가진 작업도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종이에만 집중해서 보다 가벼운 전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인선 특히 엄유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페인팅들을 최근 경기도 쪽 미술관에서의 전시들을 통하여 큰 공간에서 보여주는 기회가 많았고, 추미림 작가님 경우도 바로 직전의 개인전을 통해 풍부한 페인팅 작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드로잉 위주로 하되,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작업들을 가져오셨습니다. 특히 추미림 작가는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색연필 드로잉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엄유정 작가님은 이렇게 드로잉만으로 전시한 경우가 있었던가요?

엄유정 네,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2인전은 처음이에요.

김인선 2인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추미림 작가님의 경우에는

저희 공간과 개인전도 가졌고요. 여러 가지 행사 등을 통해 윌링앤딜링과 많은 일을 하셨었어요. 엄유정 작가님은 본격적으로 윌링앤딜링에서 개인전을 해보고 싶어서 애길 진행했는데, 올해 마침 큰 개인전 준비가 많아지셔서 2인전을 제안하시게 됐죠. 그래서 엄유정 작가님께 누구와 함께 전시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바로 떠올린 작가가 추미림 작가님이었어요.

엄유정 사실은 추미림 작가님도 개인전이 근래에 있으셨고 바쁘신 와중이었는데, 제가 프리포즈를 했고, 작가님이 감사하게도 받아 주셨어요.

추미림 네. 바빠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김인선 추미림 작가님이 평소에 엄유정 작가님 작업을 무척 좋아하고 있는걸 알고 있어서 저도 잘됐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 서로 칭찬해보시죠.

엄유정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추미림 엄유정 작가님은 워낙 인기가!!

김인선 인기에 편승하고자?

추미림 네! 약간 그런! 노림수? 농담이고요. 워낙 엄유정 작가님 작업 사랑합니다. 작가님, 좋아합니다.

엄유정 저는 왜 추미림 작가님의 작업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것보다 추미림 작가님 작업이 좋았던 게 작업의 '상큼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상큼하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는 식으로 작가님의 성향을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한 부분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작업을 보면, 시선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추미림 작가님의 작업이 멀리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는 작업이면 저는 가까이에서 포착한 장면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멀어지고, 또 멀리서 제가 바라보게 되는 작업, 그런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 또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사실 작업을 해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추미림 저도 군상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웹과 도시에 존재하는 사용자들,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있는데 엄유정 작가님도 군상의 모습을 그리는 게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요. 약간은 외로워 보이는 톤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원경을 바라보고 작가님은 근경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시를 해보니까 제가 오히려 작가님 것을 현미경으로 확대시켜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렌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김인선 어떤 면에서요?

추미림 어떤 것을 확대해서 현미경처럼 바라보면 그것이 더 추상적인 느낌으로 펼쳐진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흩뿌려진 픽셀처럼요.

김인선 누가 추미림 작가님 작업을 보시고, 들쭉날쭉한 그런 두께감을 쓰면서 사각형도 다 다다닥 크고 작게 있으니까 컴퓨터 칩 같은 느낌도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추미림 작가님은 디자이너로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이고, 디지털라이징 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엄청 수작업이 들어간 작업인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붙어있는 사각형, 픽셀들의 두께가 종이를 하나하나 쌓아서 높낮이를 다르게 만든 건데 그 쌓는 과정에서 종이를 다 잘라서 풀로 붙여서 한다고 전시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니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 방법이 아니라 굳이 손으로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추미림 제가 싸이월드 세대부터 시작했는데, 디지털이 사실 차갑고 건조한 매체로 많이 인식이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거의 생활과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감정적인 장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먼지 부스러기 같은 손맛이 나는 무엇을 화면 안에 있고, 그것을 꺼내보고 싶다는 생각, 제가 디지털 상에서 받는 태도나 느낌, 그런 감정이 있는 장소 같아요. 제 사진이나 추억이나 갔던 장소 등을 모아 놓은 폴더 같기도 합니다. 이들이 웹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고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기도 하는 등 재미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도시도 저한테는 특정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내면서 느껴지는 감정들, 그런 감정을 저는 수작업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어요.

김인선 엄유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전혀 디지털 화 되지 않은 방식이고, 재료를 다루는 방법도 그렇고, 그리는 것도 선을 간단하게 그리지만 엄청난 손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추미림 작가님이 말씀하신 아날로그적인 것과 또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미림 작가님 같은 경우는 환경 안에 있는 존재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 화면상에서 작가님의 작업은 사람 자체만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생략된 환경도 살짝 들어가서 감성과 분위기를 확 드러내는 독특한 표현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유정 제가 인물을 그릴 때 느껴지는 게, 저는 인물도 하나의 풍경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인물이라는 게 인간을 그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경험한 어떤 하루하루, 그날의 날씨가던가 상황, 작은 사건, 그런 경험들을 인물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물의 어떤 동작이나 움직임이나 리듬, 그런 걸로 그날의 상황을 제 방식대로 좀 풀어보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인물도 제가 우연히 만난 나무나 빵이나 이런 것과 다름없이 제 안에 쌓여있던 수많은 인체에 대한 데이터들을 폴더처럼 꺼내서 하나씩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추미림 작가님 작업과 닮은 지점들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인선 그래서 작업들에는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표정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 표정이,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자체를 신체를 통해서 다 설명이 되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외롭구나. 저 사

람은 비를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그려진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렇게 적은 선과 적은 표현으로도 가능하구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유정 아, 그렇군요. 저는 인체를 그린 건 예전부터 많이 그렸는데, 누드 드로잉을 많이 그렸어요. 학교 다닐 때. 그게 인체를 꼭 그려야겠다기보다는 스스로 관습적인 방식의 그리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인체부터 시작해서 드로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물을 그린 건 2009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12년 정도 그린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절로 머릿털이 생략되기도 하고, 손발이 더 커지기도 하고, 인물의 표정보다는 몸의 언어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표정이 조금씩 삭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의 얼굴들은 좀 더 무표정해진 반면 손이나 발이 더 커지는... 그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고 지난 시간 안에서 조금씩 변화한 것 같아요.

김인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드로잉을 그리셨을 텐데, 가끔 SNS에서 보면 비슷한 톤으로 흉내를 내는, 따라 그리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엄유정 네. 뭐... 워낙에 SNS는 카피하거나 서로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게 워낙 빠른 공간이다 보니까...

김인선 작업이 되게 쉬워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따라하면 절대..갈을 수 없는..(웃음)

엄유정 네, 애가 그린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거 나도 그리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웃음)

김인선 각자의 작업성향에 관해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2인전을 기획하면서, 작가 분들이 사실 다른 성향과 작업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인 부분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작가들을 모아서 3명 이상의 그룹전을 하기는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2인전을 하는 것은 사실 기획자로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거든요. 2인전은 개인전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그룹전이라고 하기에 도 되게 예민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은 설치 때 같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뭔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추미림 저는 괜찮았는데...

엄유정 아, 그래요? 저희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는데...

김인선 작가님들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맡겨놓는 편이라 두 분의 연출 과정을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건 빼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에서 조금 관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두 분이 이 작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조그마한 공간 하나 안에서 연출하는데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엄유정 일단 저희의 메인은 이 테이블이었고,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이 테이블 작업을 처음에 추미림 작가님 작업실에서 저희가 둘이 각자의 드로잉을 모아서 서로 포개보는 테스트를 했어요.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추미림 작가님 작업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어울릴지는 모르고 그냥 추미림 작가님 작업이 좋으니까 대책 없이 2인전 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물을 낼지는 사실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과정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겠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만으로 같이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저희가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추미림 작가님 작업실에서 작업을 같이 겹쳐보면서 ‘오 이거 잘 어울리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그 기분을 그대로 전시장에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인선 아 그때 생각하는데, 사실 작업을 벽에 안 걸고 이렇게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업실에 찾아뵙고 그 자리에 가서 두 분의 작업이 섞여 있는걸 본 거죠. 그러면서 또 본인들이 스스로 벽에다 추가로 이렇게 하셨어요. 작가님들을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하시는 걸 믿게 되더라고요.

엄유정 제가 한 가지 염려됐던 건 제 드로잉이 거칠고 센 편이라 추미림 작가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추미림 작가님 작업에서, 커커이 쌓아올린 밀도감이 주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펍펍 그리는 드로잉 느낌이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었어요.

김인선 그 부분이 부딪히는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유정 네 사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매력인데.

추미림 제가 못하는 선의 느낌을 잘 표현하시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엄유정 저도 그래요.

추미림 워낙 작가님이 사려 깊게 제 말을 들어 주셔서...

김인선 : 지금 하나하나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 2인전에 대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2인전을 할 때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작가가 서로 죽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 명만 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2인전은 예민하게 연출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전시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전을 해도 이 작품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작가가 팽팽한 상태에서 누구 하나가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참 잘 어울리는 연출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엄유정 일단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종이 작업이고, 드로잉이 많기 때문에 드로잉 자체가 센 느낌이 아니었고,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전 추미림 작가님이 얘기하실 때 사각형의 작은 것들을 칼로 자르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으신다고. 그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저도 드로잉에서 과정이 가진 즐거움이 되게 크거든요. 전시도 과정에서 즐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 욕심을 내는 부분이 적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보여줘야 한다거나...

추미림 저 책상 위에 있는 것들도, 저는 스텐실 기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나온 판이라든지, 평소에 누가 작업실을 직접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전시장에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김인선 이렇게 스텐실의 재료 자체로 전시를 한 게 저번에 한 번 덴마크에서의 전시 <토끼가 거북이로 변신하는 방법(2019)>에서 커튼처럼 달아서 창을 통해서도 바깥을 보고 하는 방식으로 격을 만들어서 그런 방식을 해봤었는데요.

추미림 스텐실 판으로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스텐실 판을 제작하는 것도 어떤 드로잉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던 것도 있고요.

김인선 추미림 작가님도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에서부터 드로잉이 시작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텐실의 재료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아까 살짝 가벼운 매체라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사실 드로잉 자체는 물론 다른 회화나 조각이나 다른 것에 비해 시간적인 면이나 매체의 무게, 정말 본질적인 무게나 그걸 다루는 과정 자체를 생각하면 확실히 가벼운 재료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작가가 표현하는 건 그렇게 가볍지 않은 것 같거든요. 특히 추미림 작가님은 히키코모리같이 방 안에서 어떤 종류의 우울함을 느끼고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 본인의 작품 자체의 무게, 그러니까 재료가 아니라 작업의 무게에 대해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미림 저는 이제 작업이 좀 채도가 높고 밝은 색의 어떤 정방형의 것들이 많이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귀엽다'고 하는데 귀엽다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웬지 힘이 빠지는 표현일 때가 있어요. 귀엽다 라는 단어가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면에 있는 걸 보기 전에 '오 귀엽다, 귀여운 게 있군' 이런 거요. 저는 명랑하고 싶지. 귀엽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얘기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인선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보려면 뭘 좀 봐야 할까요?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들여다보면 그런 게 좀 보이긴 해요.

추미림 네. 저는 그림을 살펴보다가 자기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다 뭐 SNS에 밝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올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포착해서 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산뜻하지만 아주 밝은 것만은 아닌. 두 가지가 교차되는 어떤 그

런 감정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더 연구해서 관객 분들이 이런 감정을 더 느낄 수 있게끔 해보고 싶어요.

김인선 평소에 인간 자체에 대한 탐구를 좀 많이 하시나요?

추미림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것이 생기면 거기 모여 들잖아요? 그 안에서 적응해서 노는 법을 바다에서 서핑 하듯이 뭔가 자연스럽게 체득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마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듯이. 이런 걸 제가 사실 좀 힘들어하는데, 저도 이제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질문지에도 주셨지만 요즘 온라인/오프라인 전시형태가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보셨는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김인선 온라인 전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셨나요? 그럼 엄유정 작가님은요?

엄유정 제 작업의 무게감이요? 사실 저도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보기 쉬운 그림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저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면 좋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냥 가볍지 않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인선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참 많이 작동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가가 어떤 작가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도 관객이 쉽게 눈치 채기도 하는 것 같아요. 관객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전시를 계속 하면서도 느꼈고 관객들과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진지한 본인의 삶과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라 작업을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도 관객들은 우리가 의도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관객들도 분명 있어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엄유정 작가님 작업을 보면 항상 '예쁘다, 멋있다. 귀엽다. 너무 좋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지만 또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사람들이 제각각 다르게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도 볼 때마다 생각하는 느낌들을 대입해 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개인의 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또 같이 막 섞어보는 그런 것들이 작동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유정 인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풍경이나 정물을 그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보는 분들도 인물이 있으니까 더 대상에 자신을 이입시키기 더 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김인선 우리 SNS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두 분 다 SNS 통해서 많은 분들이 팔로우하고 있는데, 특히 엄유정 작가님의 팔로워가 어마어마하던데.

엄유정 저도 많지만 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김인선 당연히 그렇겠지만

엄유정 미술 쪽에서만 그런 것이지... 사실 일러스트 이쪽은 몇 십만씩... 더 많은 분들이...

김인선 그러니까 이게 워낙 현대미술, 순수예술을 어려워하니까 대중적으로 팔로워가 많아지고 SNS상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SNS에 어떻게 보면 추미림 작가님과 또 다른 방식으로 엄유정 작가님의 드로잉은 SNS에 적합한 매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게 평면적인 장치이기도 하고, 실제로 보는 거랑 SNS상으로 보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점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팔로워가 많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건인의 역할을 작가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돼요.

엄유정 제가 견인할 만큼은 아니에요.(웃음) 근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SNS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을 때, SNS라는 공간 안에서 작업이 보여 지는 게 몇 초간의, 실시간의 전시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SNS가 하나의 저한테는 작업을 보여주는 수단 매체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냥 놀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라는 것과 시간의 속도감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텀을 두고 하잖아요. 뭔가 작업을 많이 그리고 설치도 같이 하고 다 한 다음에 작가는 숨고 그 공간에 오는 누군가가 공간에서 경험하고 가고. 그런 긴 시간으로 이뤄지는 곳이랑 SNS는 제가 예를 들어 새벽 4시에 뭔가를 공유하고 싶다 이런 이미지를, 그때 그 시간에 공유하면 그걸 올리는 저와 보는 관객이 동시에 어떤 그 이미지를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어떤 얇은 유리창 두고. 그래서 속도감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눈이 오는 날이나 그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런 면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 공간에서 작업을 보는 그 경험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웹 안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 자체는 그 안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변화를 하는데 그게 그냥 또 작업이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보여 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대로 연동되진 않고 그 안에 필터링이 되잖아요. 작가 스스로가 이미지를 편집하고 크롭하고 보정을 하기도 하니까 그게 원본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생각은 안 들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 지는데 그게 흥미로운 점은 그 안에서 교감이 일어난다는 것이 원화는 아니지만 또 다른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선 추미림 작가님도 SNS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추미림 아주 열심히인가요? 저는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은데... 노력을 하죠. 저는 제가 관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로 눈팅을 많이 합니다. 작품이 워낙 섬세하다보니 한 번에 눈길을 확 사로잡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아쉬워요. SNS에서는 강렬한 이미지가 시선을 끌죠.

엄유정 저는 추미림 작가님 작업도 충분히 강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은 했어요. 해시 태그나 그런 요소들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 게 SNS 환경 자체가 오히려 작가님 작업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그림 안에서 노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그걸

활용하는 작가인 것 같고, 작가님은 그걸 펼쳐 보이는 느낌?

추미림 제가 원래 사실 디자이너로 시작했을 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사용자 환경을 개발하는 그래픽 팀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걸 닫을 때 어떤 아이콘으로 어디에 위치해야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닫는지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 적응을 너무 잘 하잖아요. 그런 것도 관찰하는 게 재밌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저도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관찰의 대상인 것 같아요.

김인선 추미림 작가님하고 놀면 최신 정보가 많더라고요. 온라인 정보 활용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전시 공간, 사람들이 직접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SNS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또 작가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SNS는 체험 바로 직전까지 오는 소통과 정보의 단계일 뿐이지 그걸로 체험을 했다라고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맞는가 싶고..

엄유정 근데 거기서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추미림 뭐랄까 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김인선 공감능력이 뛰어난 거 아닐까요?

엄유정 근데 그게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판단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근데 온라인에 전시나 이런 걸 보면 저도 이제 그런 VR로 오픈 스튜디오도 찍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확실히 한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실제 작업을 보면, 표면에 느껴지는 질감이나 촉각적인 경험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한계가 있고 저는 아마 그런 한계를 보이는 작업을 가진 작가겠죠. 근데 온라인 환경에 더 어울리는 작업의 방식에 맞는 작가분이면 또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하실 것 같고. 그게 그대로 찍는다고 다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편집이 되거나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김인선 직접 봐야지 좋더라는 체험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잭슨 폴록이 그린 작품을 사진 찍은 화집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물감 뿌려놓은 그림. 그냥 복잡하다. 물감 엄청 썼구나' 근데 그걸 실제로 봤을 때 캔버스로부터 물감이 쌓인 두께와 물감이 뿌려져 있는 상태의 밀도감을 보니까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 이후로 잭슨 폴록이 여전히 취향은 아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작가구나 라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말레비치 같은 경우도 흰 사각형 안에 흰 사각형 이런 작업물이 그냥 미니멀하다 정도의 개념으로 이미지를 봤다면, 그걸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그 이미지 안에 그려져 있는 사각형 자체가 실제로 부유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보지 않았으면 못 느꼈겠구나. 그래서 실제 현장감을 가지고 실물을 직접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든 작가님들은 다 모더니즘 작가들이지만, 어

봤든 지금 현대에서는 SNS에 최적화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봤을 땐 아무것도 없지만, 온라인상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존재하면서 효과를 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신블리 또 단정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미림 저는 전시를 보기 전에 SNS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 전시 꼭 가서 보고 싶다. 이 작업은 실제로 봤을 때 어디가 어떻게 다르고 흥미로울까’ 이런 걸 챙겨가면서 보고, 그게 저에게는 작가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작품은 먼저 한번 봤기 때문에 더 익숙하고 친숙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특징들, 또는 본인이 생각 하는 바 등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전시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두 분 작가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전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이 서로 보완하는 게 작품 자체로서 가능한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겠죠? 그런 건 사실 기관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아, 사실은 제가 작가님들과 면담하거나 기관에서 면담할 때 가끔 심사 하시는 분들이 작가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 중 하나가,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전시를 못 오게 되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왜 작가에게 던지지는? 의아하다고 생각했어요.

엄유정 좀 조언 좀 구하는 건가요?(웃음)

김인선 그 대책까지 작가가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다들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기관에서 사실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작가 분들이 그것까지 연구하기는 힘들죠.

엄유정 사실 팬데믹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전시라는 것을 하는 게 좋은 걸까. 초대를 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이걸 오픈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전시도 취소되고... 그런 와중에 지금 해외도 나가지 못하는데 전시라도 봐야지 그 안에서 뭔가 또 다른 창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라도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위험하지는 않을까...

김인선 솔직히 식당보다 안전한 데가 미술관 같은데... 관람 온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정말 입을 닫고 조용히 보고 나가는 공간이다, 사실 참 안전지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항상 미술관이 문을 닫아야 하고 그런 걸 보면 약간의 불만이 있기는 해요. 그건 통제를 잘 하는 시스템을 먼저 빨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들 우왕좌왕하는 상황인데, 이제 좀더 경험해봤으니까 대책이 또 다음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협업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두 분 다 협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작가십니다. 많은 작가 분들이 그런 협업과정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종류의 협업자들이 제안을 해오고 어떤 경로로 하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실제 화장품 회사나 신발, 패션 이런 쪽에서 많이 협업하셨고, 워낙 디자이너로서

웹페이지나 여러 공공예술 등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엄유정 작가님도 책표지, 최근에는 장기하 씨의 작업에도 참여했고, 앨범 커버, 그리고 따로 기관하고 협업하셔서 매년 생산되는 달력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요?

추미림 저는 협업할 때 다른 작가들과는 다르다고 호평 받는 부분이, 매 번 새로운 시안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기존의 작업을 협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기존의 작업은 변형이 힘든 상태일 수 있는데. 저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맞춰 맵핑을 하듯이 제 스타일을 넣은 새로운 시안을 개발하죠.

김인선 그럼 그렇게 새롭게 만들면... 일반적으로 작업으로서 해왔던 이미지들과 다른 자아가 나오기도 하나요?

추미림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해요. 시안을 좀 유동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중심이지만 작가인 걸 알고 연락했기 때문에 조금은 또 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건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라고 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김인선 그럼 조금 수궁이 되나요?

추미림 네, 과한 수정이 별로 없고, 조금 수월합니다.

김인선 보통 어떤 경로로, 뭐 지인의 소개나?

추미림 네, 지인의 소개나.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이 아니라 관이나 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김인선 엄유정 작가님은요?

엄유정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졸업하고서 계속 어떤 개인 작업을 하면서 일러스트나 상업적인 일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다들 서브 잡을 가지듯이 저도 하나의 서브잡의 개념으로 일러스트를 병행하면서 개인 작업을 해오던 게 십 년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두 가지 갈래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의도치 않게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사실 전략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어나가다 보니까.

김인선 그럼 이런 작업들이 일러스트로서 있을 수도 있고, 작업으로서 있을 수도 있나요?

엄유정 저도 작업을 할 때 사실 보여 지는 작업물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태도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일러스트 일을 어떤 외주,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최종 결정권자죠. 제가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서 조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제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가진 최대의 능력치를 클라이언트와 잘

맞춰보는 그게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 작업보다 제가 더 궁금했던 것, 탐구해보고 싶었던 것이나 실험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걸 시도해보는 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비슷하더라도 저는 다르게 자아를 바꿔서 하고 있어요.

김인선 그럼 시안을 가지고 갔는데, 아 색깔이 너무 어둡다 이러면...

엄유정 근데 저도 한계치가 있죠. 이 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 제 작업이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조율을 하다가 미련을 두지 않기도 해요.

김인선 본인들의 스타일, 특징이 없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엄유정 근데 없어질 때도 종종 있고... 그게 다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김인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작가로서의 자아와 협업자로서의 자아와 마음가짐이 확실히 다르긴 해야겠네요.

엄유정 네. 초반에는 좀 상처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작업 자체를 수정한다는 것이 되게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김인선 추미림 작가님도 그러셨나요?

추미림 제가 알아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참으려고...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엄유정 그런데 이런 협업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협업을 하다 보면 작업이 하고 싶어져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개인 작업이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작업 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마냥 좋아하는 일만 하진 않죠.

김인선 저는 되게 훌륭한 클라이언트지 않았나요? 별로 수정하란 소리도 안 하고.(웃음)

추미림 사실 이렇게 믿어주는 것만큼 최고의 그런 게 없는데.

김인선 감사합니다.(웃음) 믿으니까 의뢰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엄유정 10년 전만 해도 초반에는 드로잉이나 일러스트를 할 때, 그림이 너무 세다. 무섭고 다크하다 하면서 의뢰한 쪽에서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 스타일을 알고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쌓여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보다 수정이나 이런 비율이 덜 한 것 같아요.

김인선 사실 두 분 출신이 되게 반대예요. 엄유정 작가님은 서양화 전공하셨고, 추미림 작가님은 디자인 전공하시고, 각자 서양화 전공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시고, 디자

인 전공하시고 순수예술 쪽으로 가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분이서 위치가, 어떤 자기 전공을 시작을 했다가 뭔가 바뀌어나가는 과정이신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동시대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를 필드에서 어떻게 본인의 위치를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는지 자기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엄유정 저부터 얘기하자면 전략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냥 저한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현대미술도 좋아하고, 활동을 하면서 일러스트 작업도 하는데, 그거 두 개를 분리하려고도 노력하고... 지금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긴 한데, 분리하려고 애쓰다가 사실 이렇게 혼재된 상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잘 맞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온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김인선 전략이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큐레이터라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작가들과 작업들에 대해 공간의 성격이 정해지게 되는데, 저도 딱히 한 가지 성격을 정해서 전시를 하는 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윌링앤딜링의 성격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보면 '아 재는 저런 애구나'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추미림 저는 항상 약간 다른 꿈, 야망이랄까. 최적화된 어떤 것을 만들고 싶다는 것. 지면 일 때, 혹은 도시의 크게 위치한 벽화일 때, 또는 전시장일 때, 화면으로 보일 때, 그 때마다 모습을 바꾸고 레벨 값을 조금씩 조정해서 그곳에 맞는 어떤 것을 개발하는, 그런 변신이 가능하고 유동적인 것을 해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인선 현대미술 작가, 지금의 젊은 세대 작가님들은 그런 게 참 유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미술을 배울 때는 고집을 하게 만드는, 스타일을 전수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성향이 강할 때는 '아 예술이라는 것처럼 똥고집으로 가는 거구나. 변하지 않는 나만의 것이 있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죠. 물론 지금은 나만의 것이라는 기준이나 해석이 달라졌으니까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인 상태보다 좀 더 열린 버전의 나만의 것이, 나의 성향이 필요할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계속 작가님들한테 먼저 배웠거든요. 그냥 아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기도 하는구나. 저는 어르신 큐레이터 분들이 너무 한 가지만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웃음) 난 뭘까, 생각을 했다가 그냥 내 맘대로 하자. 그리고 있어요.

엄유정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하루에 소비하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잖아요. 인스타그램만 봐도 강아지 사진도 봤다가 작가들 전시도 봤다가 먹는 것도 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소비하고 살고 있는데, 저의 삶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꼭 그것을 하나로 고정시켜서 작업을 하기에는 저에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인선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걸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냥 본인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 세상 살았으면 좋

겠네요(웃음).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라이브 시청자 분들께서) 지금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써주시면 최대한 대답을 해볼게요.

김인선 작가님. 사무실 안쪽에도 드로잉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드로잉들에 대해서, 저걸 따로 보여주고 계신데, 저런 드로잉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매일 작업을 하세요?

엄유정 그게 사실 SNS의 폐해인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 작가인 줄 알고... 사실 노는 시간 되게 많아요. 업로드를 많이 할 뿐이에요.(웃음) 그래서 드로잉은 작업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그리기도 하고, 한 번에 많이 몰아서 그리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김인선 특별히 어떤 전시나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다가 한 번씩 이런 기회가 있으면 추려서 전시를 하고 그런 식인 거죠?

엄유정 네,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는 다 거의 신작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작업을 해왔어요. 그리고 추미림 작가님 작업을 생각하면서 그리기도 했죠. 아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얘기하면서 서로 나눴던 대화 중에 팬데믹, 코로나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인물을 그릴 때 그런 거리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격리되어야 하잖아요, 만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인물들이 뭉치고 흩어져있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그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로잉을 시작하게 됐죠.

김인선 추미림 작가님은 이번 전시에는 구작이 좀 많죠.

추미림 네... 구작인데,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었던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요. 저는 바로 직전에 개인전이 있었는데, 그것과 좀 다른 톤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작업들로 준비해왔어요.

김인선 네, 지금 질문들이 들어와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윤가림 작가님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엄유정 작가님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인물을 드로잉 하실 때 특정 주인공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나요?’

엄유정 저일 수도 있고, 저로부터 기인하는 거긴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염두 해서 그리진 않고, 사실은 오히려 그런 참고하는 이미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을 지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대상 자체는 삭제되고, 재료나 동작만 남는 것 같아요. 동작이나, 인물이 가진 장면 자체나...

김인선 네 다음 질문. 김성우 기획자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둘의 드로잉이 전시장 안에서 묶이는 한 꼭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주 기획자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엄유정 상큼함?

김인선 그럼 한 사람씩 단어를 하나 써볼까요?

추미림 군상.

김인선 그럼 저는 인간? 네, 그런 정도. 자, 이지민씨 질문. ‘이번 추미림 작가님 작업은 뒤에 보이는 것처럼 모두 흑백인가요?’

추미림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 흑백이고, 저쪽에 컬러가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김인선 제가 이거 끝나고 천천히 투어를 한 바퀴 돌게요.

엄유정 질문이 들어왔네요. ‘함께하게 된 계기’를 질문하셨어요. 저희가 초반에 서로 작업을 좋아하고 있었고, 저는 2인전을 하게 되면 미림 씨와 전시를 준비하면 굉장히 즐겁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했었고, 작가님이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서 같이 하게 됐어요.

김인선 두 분이 워낙 서로 작업을 원래부터 좋아하고 계셔서, 제가 언뜻 생각해보니까 추미림 작가님이 엄유정 작가님 작업 너무 재밌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 엄유정 작가님도 추미림 작가님 작업 좋다고 했던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서로 뭐랄까, 흠모?

엄유정 그런 것 같아요. 서로 팬의 입장에서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협업이라는 게. 그렇게 됐을 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작업이 서로 안 맞는데 억지로 2인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인선 맞아요. 특히 엄유정 작가님은 가수나 소설가 이런 분들한테 협업이 들어와도, 이 내용은 너무 내 그림에 분위기가 안 맞다라고 하면 거절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유정 가끔 하기 싫은 것도 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웃음) 근데 이제 가능하면 저랑 잘 맞거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2인전은 처음이라서 고민이 많기도 했는데, 작가님이랑 전시 준비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전시를 하는데 부담이 없었던 일이 잘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작가님 많이 의지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많은 전시가 사실 연기되고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소중한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율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추미림 저는 여기서 맞춰가면서 직접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저희가 작업실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냈던 그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함께 전시를 하는구나. 전시 위해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서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기분 좋은 느낌? 그런 걸 느껴서 개인전과 다르게 좋았어요.

김인선 너무 다행이네요. 저는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작가님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종류의 만족감을 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전시를 하고 전시 내내 기분이 좋은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재미있게 잘 해주셔서 좋고, 좋은 전시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 그런 마음입니다.